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책임자가 없는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이 유고 시에는 바로 선박의 항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선장의 임무를 맡아 키를 잡고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하게 하며, 국가의 책임자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유고 시에는 바로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무 수행을 해서 국가를 책임지고 정치한다. 국민은 정상적인 책임자를 선출해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한다. 선출제가 아닌 임명제 책임자는 상급 임면권자가 지체 없이 후속 인사를 단행해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임명제 책임자의 임명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격자를 임명해야 한다. 군수는 면장을 임명하고 구청장은 동장을 임명한다. 면장과 동장의 유고 시는 바로 임명을 해서 권한대행이 임무 추진하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은 광주시가 막대한 국비의 지원을 받아 2009년에 완공하여 개관한 노인 복지 건강타운으로 하루에 4천여 명의 노인 인구가 오고 가며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광주시로부터 84억여 원의 연간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빗고을 건강 타운의 책임자인

재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감사 결과 부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이러한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에 책임자인 재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결석인데 광주시장은 후속 인사 단행을 하지 않고 이 개월이 넘도록 방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과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질 직접 관리 책임자가 없어 건강타운을 드나드는 노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선정해 발령하는 것이 유능한 지도자의 통치 철학이다.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아 문책으로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다면 광주시장은 후속 인사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바라는 건강타운 운영지도자는 노인의 경험을 다스리나 접한 60세 이상 사람이었으면 하고 있다. 건강타운은 노인 인구인데 노인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대학교수나 일반인을 발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임명될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의 책임지도자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청렴한 인품을 지닌 자로서 근무 성실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서 청렴은 부정을 멀리하고 창

의력을 발휘해 건강타운 운영을 경제원칙에 따라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임명했으면 한다. 책임자의 무사 안일은 무책임에 속하며, 무능은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의 부류에 속한다. 기해년 새해가 되어 설날이 지났고 입춘이 지나 이제는 새 희망 새봄의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되었다. 광주시장은 하루빨리 적임자를 선정해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에 가장 적임자를 선정해 재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발령하여 건강타운의 조직 관리를 일신하고 다시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는 운영이 되게 해주었으면 한다.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 임면권자도 간접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느끼고 반성한다. 세월호 사건은 회사와 직접 운영을 잘 못 한 선장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몰아 쏠부러 번져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음을 정치지도자는 알아야 한다. 빗고을 노인 건강타운의 안전 운영 책임자는 광주시장임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주었으면 한다.

社說

블랙리스트인가 체크리스트인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야당은 '불법 블랙리스트'를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합법 체크리스트'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권 편향적이란 비판을 달고 살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직전 환경부장관은 물론 현직 청와대 관계자까지 조사할 뜻을 내비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환경부 사건에 대해 여론은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합법적인 감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수만 명에게 불이익을 안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환경부 리스트는 대상과 수사-작동방식 면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환경부 의혹 사건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여론의 해명과 주장에 고개를 갇혀 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가 이번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공공부문 물갈이 인사도 차제에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그릇된 관행을 털어내길 바란다. 이번 환경부 사건이 공공부문에 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찍어내기'나 '표적 감사'라는 그릇된 관행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나물'에 그빠'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독자기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 생활화 해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보았을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

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속 아파트에만 적용이 됐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주차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무안소방서 무안안전센터장 백종희

독자기고

눈이나 빙판길에선 평소보다 차량속도 줄여야

겨울철에는 급변하는 날씨로 갑자기 눈, 비가 내리는 경우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운전시 주의를 해야 한다. 겨울은 운전 기술과 경력에 상관없이 눈길, 빙판길 운전법을 숙지해야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우선,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저속 운전은 필수다. 도로 표면이 얼거나 눈이 쌓이면 미끄러지기 매우 쉽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 제동거리는 건조한 노면보다 훨씬 길다.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과속을 하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원하는 지점에 정지할 수 없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커브길 운행시 감속은 필수다. 대부분 운전자가 커브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때는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다. 커브 진행 중 엔진 브레이크나 기어변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울러, '急(급)'자 들어가는 행동은 하지마라. 눈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 급정

지 등 급작스런 조작은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풋 브레이크 외에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자.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스핀 현상으로 자칫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평소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습관을 들이고, 엔진 브레이크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속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어를 넣어 주는 방법이다. 내리막이나 빙판에서 3-4단으로 달리다 1-2단으로 낮추면 엔진 회전속도가 급격히 줄면서 속도가 낮아진다. 눈길에서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변속해 엔진 브레이크로 차를 정지시키는 게 보다 안전하다. 이처럼,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무엇보다도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쉬운면서 확실한 방법이다.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방어요령을 익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오직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수소방서 연동119안전센터 허진영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 (전남도민일보) featuring the slogan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A fair newspaper that reads the world). It includes a list of regional reporter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Donggu, Namgu, Bukgu, Mokpo, Sinan, Naju, Damyang, Gwangju, Gurye, Boseong, Hwasun, and Jangheung.